**로마서 13-16장**

**9/4 월요일**

**롬 13:1-2, 5, 7-8, 10**
**1** 각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십시오.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권위가 없으며, 이미 있는 권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.
**2** 그러므로 사람이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입니다.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.
**5** 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라도 복종해야 합니다.
**7** 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십시오. 세금을 바쳐야 할 이에게는 세금을 바치고,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며,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,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.
**8** 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.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.
**10** 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.

**9/5 화요일**

**롬 14:1, 3, 6, 8-10, 12**
**1** 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, 그의 견해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
**3** 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,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.
**6** 일정한 날을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지키며, 먹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먹습니다.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먹지 않으며,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
**8** 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,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.
**9** 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과 살아 있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
**10** 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?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?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.
**12** 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낱낱이 진술할 것입니다.

**9/****6 수요일**

**롬 14:13, 15-16, 17-19, 21-23**
**13** 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. 오히려 형제 앞에 걸리게 하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지 않았는지, 판단해 보십시오.
**15** 만약 그대의 음식 때문에 그대의 형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, 그대는 이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대의 음식으로 그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.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.
**16** 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.
**17** 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,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.
**18** 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.
**19** 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합시다.
**21** 고기도 먹지 않고,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, 무엇이든지 그대의 형제를 걸리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**22** 그대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.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.
**23** 그러나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.

**9/7 목요일**

**롬 15:1-4, 5-7**
**1** 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하고,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.
**2** 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, 건축하는 데에 유익이 되게 합시다.
**3** 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. 성경에 “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제게 쏟아지나이다.”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.
**4** 전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, 그것은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이 주는 격려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**5** 이제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은
**6** 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한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,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.
**7** 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,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.

**9/8 금요일**

**롬 15:16, 18-19, 25-28, 30, 32**
**16** 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,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.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.
**18** 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 외에 그 무엇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. 그 일은 나의 말과 행위로,
**19** 또 표적과 기이한 일의 능력으로,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습니다.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빠짐없이 전파하였습니다.
**25** 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에게 공급을 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.
**26** 왜냐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헌금하였기 때문입니다.
**27** 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는데,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.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,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.
**28** 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 준 후에,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.
**30** 형제님들,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영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. 여러분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여,
**32** 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,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.

**9/9 토요일**

1. **롬 16:1-5a, 23a**
**1** 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.
**2** 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의로 그녀를 영접하고,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도와주십시오. 이 자매는 많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.
**3** 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.
**4** 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.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.
**5** 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. 나의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.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.
**23** 나를 접대하고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,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.
2. **롬 16:20**
**20** 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.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
3. **롬 16:25-27**
**25** 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,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.
**26** 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, 신언자들의 글을 통하여,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,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.
**27** 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
4. **9/10 주일**
5. **고전 12:12-14, 18, 23-27**
**12** 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,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,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.
**13** 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,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.
**14** 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입니다.
**18** 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.
**23** 우리는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 줍니다.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지만,
**24** 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.
**25** 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.
**26** 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,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.
**27** 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,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.
6. **찬송: 847 영 안의 교통 사모하네  (中:611)**

**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**

1. **1단계-순차적 연구**로마서 5:1-11; *로마서 라이프 스타디*, 37-39장

**2단계-주제별 연구**Crucial Point: The Selection, Predestination, and Mercy of God**Scripture:** 로마서 9:1-18
**Assigned Reading:** *Life-study of Romans,* msgs. 22, 58
**Supplemental Reading:** *none***찬송:** 25

For study questions and additional materials, please visit the church website at**churchinnyc.org/bible-study**